

道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청신호... 면역치료 플랫폼 유치

과기부 공모 선정... ‘국가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탄력 성공 운영 위한 전문가TF 구성... 연내 착공·내년 준공

전라남도는 암·치매 등 난치성 질환의 차세대 치료백신인 면역치료제의 국가 컨트롤타워를 담당할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유치가 성공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일 전남도청 기자회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공모사업에 전라남도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블루바이오, 전남’을 실현하겠다는 민선 7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의 구상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면역치료제 산업은 최근 초고성장 등으로 난치성 질환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165조 원 규모의 거대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며 “우리나라도 이번 사업을 통해 화순백신산업특구를 중심으로 면역치료제 개발과 제품화를 위한 글로벌 경쟁에 당당히 합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업은 전남도가 2017년 전국 최초로 기획하고 그동안 정부 설득과 예산확보 노력을 통해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되고, 국가사업으로 채택돼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은 국비 230억 원 등 총 460억 원을 투자해 오는 2021년까지 화순전남대병원 내에 센터가 들어선다. 면역치료 전문가 70여명과 국내 유수의 대학교·기업·종합병원 등 17개 기관이 참여한다.

참여기관은 전남대와 GIST, 포스텍, 화순전남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주)박

셀바이오 등 국내 최고의 면역치료 전문 기관·기업 등이며, 전문가간 협업(오픈이노베이션)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해부터 선제적으로 국비 등 총 200억 원을 투입, 면역치료 벤처기업이 구축하기 어려운 필수 설비·장비가 완비된 면역세포치료제 생산시설 4개소를 벤처 창업과 신약개발, 사업화 지원을 위해 올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에 유치가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과 함께 총 660억 원이 투입돼 연계를 경우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은 지역경제에도 효과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남도는 이번 사업으로 면역치료 연관 기업 30개사 유치와 1천 100여개의 일자리 창출을 비롯 항암면역치료제 국산화와 신약 개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형 국가 프로젝트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라남도는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국무조정실을 비롯 보건복지부, 국회 등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건의 중이다. 올해 연말에 지정신청서를 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전라남도는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이 들어설 부지 매입과 개념 설계를 이미 마쳤다. 센터 조기 완공과 성공적 운영을 위해 전문가TF를 구성, 내년 준공을 목표로 실시계획을 조기 마무리하고 연내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윤규진 기자



환경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개소식 이용섭 한국상하수도협회장(광주시장·가운데)이 2일 오후 서울 한국상하수도협회 비상홀에서 열린 ‘환경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개소식’에 참석해 홍정기 환경부 차관(왼쪽),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오른쪽)과 현판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청년 스마트농업 교육생 모집

16일까지 30명 모집...스마트농업 운영 기술 등 교육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광주의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농업인 양성을 위해 스마트농업 분야 교육생을 모집한다.

오는 16일까지 30명의 청년 스마트농업 전문교육 교육생을 모집하고, 22일부터 9월23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한다.

지원자격은 광주시에 거주(주민등록등본 기준)하고 있는 만 39세 이하 농업인 또는 영농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s://www.gwangju.go.kr/agri/>)를 참조하거나 농업지원과 인력육성팀(062-613-5272)으로 문의하면 된다.

교육은 스마트농업 운영기술, 스마트농

업 현장 우수사례 견학 및 실습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번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첨단기술공동실습교육장을 방문해 실습 등으로 스마트농업을 현장에서 학습할 수 있는데 중점을 뒀다.

양희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광주시농업을 이끌어 갈 미래 농업인재 육성을 위해 청년농업인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광주·전남중기청, 수출바우처, 19일까지 신청·접수

시장조사, 전시회, 해외인증 등 기업당 최대 1억 지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이 현조)은 오는 6월 19일까지 중소기업이 수출에 필요한 지원을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출 바우처’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출규모별로 지원하는 성장바우처와 브랜드 K·규제자유특구·스마트공장 등 혁신바우처로 나뉘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역량(수출실적) 및 업종 특성(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따른 현장평가를 거쳐 참여기업을 선정할

다. 선정기업에는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세부사업별로 보조금 기준 3,00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수출 바우처가 전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최대 70%까지 지급된다.

선정기업은 지급된 바우처로 디자인개발, 전략컨설팅, 해외규격인증, 해외시장조사, 국내외전시회 참가 등 해외 진출 준비활동과 온오프라인 해외진출 마케팅 등 1,200여개 수행기관의 6,000여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 이용할 수 있다.

/김재섭 기자

전남도, 여수산단 환경대책 ‘마스터플랜안’ 논의

거버넌스 권고안·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방안 등

전라남도는 최근 여수시청에서 ‘여수국가산단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갖고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주민대표와 사회단체, 행정기관, 전문가 등 20여 명의 위원과 기업체 관계자가 참석, 여수국가산단 주변 지역 ‘환경실태조사, 주민 건강역학조사 및 위해성 평가 수행을 위한 마스터플랜안’과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방안’을 비

롯한 주요 의제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했다.

‘환경실태조사, 주민 건강역학조사 및 위해성 평가 용역수행 마스터플랜안’에 대한 논의에서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원 선정방식을 결정, 평가항목 배점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용역 공고안과 제안요청서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해 다음 회의의 안건으로 계속 다루기로 했다.

또한,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운영’은 전남도와 여수시, 법대위 등 관계기관이 T/F팀을 구성 후 구체적인 협력적인 설치 운영·방안을 마련해 거버넌스 권고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여수산단 민관협력 거버넌스 권고안’은 위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차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버넌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기간을 3개월 연장기로 합의하고, 다음 16차 회의는 개최용역수행 마스터플랜안을 비롯 거버넌스 위원회 권고안, 실무위원회 구성안, 지도·점검인력 충원 등 논의를 위해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윤규진 기자

경제지표

코스피	↑	2,148.56(+2.94)
코스닥	↓	742.45(-0.15)
원·달러·환율	↓	1,217.70(-0.39)
금리(국고채 3년)	↑	0.85(+2.41)

광주시, 긴급생계비 1005억 지원

광주광역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극복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한 가계급생계비 지원사업 신청가구에 대한 심사작업을 완료했다.

광주시는 지난 4월1일부터 5월8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지원을 신청한 52만 8417가구에 대해 심사작업을 진행하고 중복신청이나 제외대상 등 7만8826가구의 오류신청 건을 제외한 44만9591가구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활용한 소득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29만1522가구(64.8%)에 대해 1005억 8180만원의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결정가구를 가구원수별로 보면 30만원이 지원되는 1~2인 가구가 17만8284가구로 전체의 61.1%를 차지했으며, 3~4인 가구가 40만 원) 9만5224가구(32.7%), 5인 이상(50만원) 1만8014가구(6.2%) 등이었다. /윤규진 기자

전남형 긴급생활비 36만 가구 지원

전라남도는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신청을 마감한 결과, 당초 지원계획 대비 4만여 가구가 증가한 36만여 가구에 1천 2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라남도도 따르면 신청 마감일인 지난 5월 29일 기준 약 54만 가구가 신청했으며, 이는 당초 예상 대비 약 170% 가량 증가한 결과이다.

이 중 약 32만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으며, 6만여 가구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다. 최종적으로 당초 계획된 32만 가구 대비 4만여 가구 늘어난 36만여 가구에 사업비가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대상이 증가한 사유는 ▲도민 의견을 수렴해 기준일을 확대하고 ▲고령 어르신을 위한 방문 접수, 상품권 지급 등 적극적인 민원대응 ▲건강보험료 등 공적자료 일괄제공 및 열람으로 서류 간소화 등 긴급생활비 업무담당 공직자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윤규진 기자

올바른 기침예절로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기침예절을 지켜주세요!

기침할 때는 옷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주세요!

1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 가리기

2 옷 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3 기침 후 비누로 손씻기

‘코로나19’ 우리 모두 힘 모아 이겨냅시다!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우고 계신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전남도민일보 | 시민신문 전국기자협회